

<달로 간 코미디언 - 김연수>

3103 김솔미

갈래 - 현대 소설

- 단편 소설

- 심리 소설(인간 내면의 심리적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과 묘사를 주로하는 소설)

성격 - 사실적

- 회상적

- 반성적

배경 : 1970~2000년대, 한국과 미국

시점 :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줄거리

‘나’ 198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복싱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 ‘김득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디오 PD인 ‘안미선’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곧 ‘안미선’의 뜻에 따라 헤어지게 된다. 여전히 ‘안미선’을 사랑하여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 가던 ‘나’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그녀의 삶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뒤늦게 성공한 코미디언 ‘안복남’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처까지 안은 채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공연이 담긴 영상 자료를 돌려 보고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어느 날 점자 도서관에 찾아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복남’이 사실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한편, 아버지는 1981년 이후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가 라스베이거스로 경기를 떠날 때 후원자 기업인의 요청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훔쳐 행방불명되는데, 이때 눈이 멀어 있었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안미선’은 미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사막에서 소리를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 자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려 준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녹음 CD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동봉한다.

특징

- 1인칭 관찰자 시점
- 서술자 '나'가 중심인물인 '안미선'과 '안미선'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
- 서술자가 말하기 방식과 보여주기 방식을 활용하여 전달
- 서술자가 받은 편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개
-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인물의 행적을 밝힘
-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인물의 삶을 요약해서 제시
- 구체적인 대화를 직접 제시하여 인물의 감정을 전달
- 현실과 허구,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어울려 망각된 인물을 실존의 맥락으로 복원
-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들을 활용하여 사실성과 객관성을 보여줌
ex)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국풍81 등
-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건 : 안복남이 다치게 된 사건으로 시력을 잃게 시작
- 1981년 국풍 81 : 안복남이 마지막으로 TV에 나온 프로그램
- 1982년 김득구 사망 : 안복남이 후원회장의 돈을 훔쳐 달아나 실종된 날이자,
나와 안미선이 인연을 맺게되는 계기
- 2001년 911테러 : 안미선이 아버지 안복남을 상기, 추적하게 된 계기이자 헤어지게 된 사건

인물 정리

- 나 - 서술자로 '안미선'과 사귀다가 헤어진 인물.
 - '안복남' '안미선' 부녀의 관계를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

안미선 -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다가
'이 관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실명 가능성을 듣고 눈물을 흘림.
-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편지로 전달

안복남 - 코미디언
- 81년 국풍 공연 이후 TV에 나오는 일 없이
82년 후원회장의 돈을 훔쳐 달아나다가 실종

이 관장 - 시각 장애인으로 '나'에게 시각 장애인의 소통법을 설명.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복남'이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하고 '안미선'에게 이야기 함.

김득구(권투선수) - 82년 챔피언 타이틀을 위한 시합 도중 사망하게 된 선수

사건 정리

발단 : '나'와 '안미선'이 사랑하다가 헤어짐
전개 : 9.11 테러 사건이 '안미선'의 삶의 전환점이 됨
위기 : '나'가 '안복남'과 '안미선'의 관계를 알고 점차 도서관 '이 관장'을 만남
절정 : '이 관장'으로부터 '안미선'과 아버지 '안복남'의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됨
결말 : '나'와 '이 관장'은 '안미선'이 보낸 CD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함

달로 간 코미디언

3304 김예인

전체 줄거리

'나'는 198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복싱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 김득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디오 PD 안미선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이유를 모른채 곧 안미선의 뜻에 따라 헤어진다.

3년 뒤 나는 그녀가 일하는 방송국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소풍부족으로 생기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그녀의 삶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뒤늦게 성공한 코미디언 안복남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입고 있었다. 그 후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미국으로 갔다고 알고있던 그녀는 어느 날 점차 도서관에 찾아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복남이 사실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고 미국에서 실종된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미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사무에서 소리를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 자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려 준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녹음 시디(CD)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동봉한다. 나와 도서관장은 함께 시디를 들으며 아버지는 1981년 국공81을 마지막으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가 라스베이거스로 경기를 떠날 때 후원자 기업인의 요청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훔쳐 행방불명 되었다는 것을 알게된다. 나는 그녀가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 라스베이거스 시막에 도착했을 때 녹음된 바람소리를 거듭들으며 전복사고로 흔자가 된 그가 밝은 만월을 향해 걸어갔다고 생각한다.

갈래	단편소설
성격	사실적
배경	시간적 : 1970~2000년대 공간적 : 한국, 미국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과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
특징	* 여러 개의 서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엮여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됨. * 서술자가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함 * 실제 사건과 허구의 인물을 판연지어 당대를 살았던 인물과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려 냄

작품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	안복남이 다치게 된 사건 (시력잃기 시작)
1981년 국공81	안복남이 마지막으로 TV에 나온 프로그램
982년권투 선수 김득구 사건	* 안복남이 후원회장의 돈을 훔쳐 달아나 실종된 날 * 나와 안미선이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
2001년 9.11 테러	* 안미선이 아버지 안복남을 상기. 추적하게 된 사건 * 나와 안미선이 헤어지게 된 사건
역사적 사건이 인물들의 삶에 직,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통해 역사와 인간의 삶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음	

작품의 서술방식

말하기 방식 : 나는 안미선이 자신에게 보내 편지의 내용을 통해 안미선과 안복남의 삶을 전달 보여주기 방식 : 나는 안미선과 이관장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 관장의 말로 전달

소통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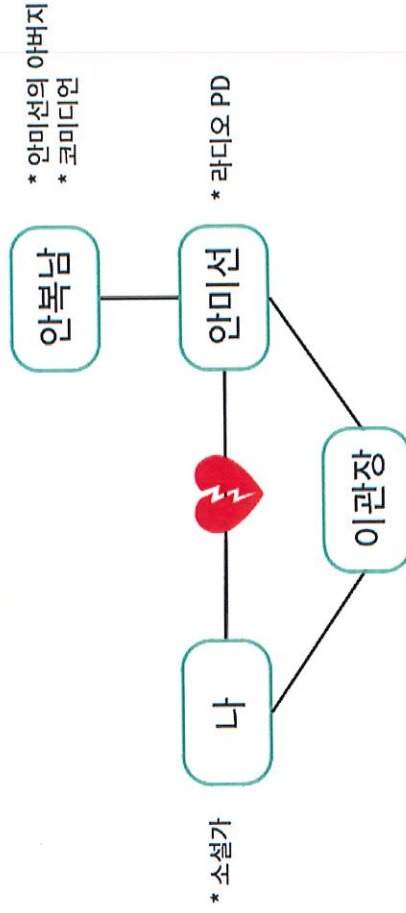
안미선과 안복남 : 아버지와외의 소통의 부재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으나.

그의 흔적을 되짚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됨

나와 안미선 : 안미선의 편지와 시각 장애인인 이관장과외의 만남을 통해 안미선을 이해하게 됨

=> 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됨

인물관계



*시력을 잃어가다 사고로인해 눈을 적출하게 된 점자도서관 관장
*안미선에게 안복남의 어려움을 전달함
*나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줌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배경: 1970~2000년대 한국, 미국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진정한 소통의 어려움

특징: -여러 개의 서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서로 엮여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됨

-서술자가 자신이 알게 된 이야기를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함

-실제 사건과 허구의 인물을 관련지어 당대를 살았던 인물과 당시 사회의 모습을 그려 냄

< 등장인물 >

나: 서술자로 안미선과 사귀다가 헤어진 인물, 안복남 안미선 부녀의 관계를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

안미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다가 이 관장으로부터 아버지의 실명 가능성을 듣고 눈물을 흘림, 자신의 이야기를 나에게 편지로 전달

이 관장: 시각 장애인으로 나에게 시각 장애인의 소통법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복남이 겪었을 어려움을 짐작하고 안미선에게 이야기함

< 소설 전체 줄거리 >

‘나’는 1982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복싱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 김득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라디오 PD 안미선을 만나고 둘은 사랑에 빠지지만, 곧 안미선의 뜻에 따라 헤어진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여 그녀와의 인연을 이어가던 ‘나’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그녀의 편지를 받고 그녀의 삶에서 몰랐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녀의 아버지는 뒤늦게 성공한 코미디언 안복남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수치심을 안고 있었고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후에는 아버지를 잃은 상처까지 안은 채로 살아가며 아버지의 공연이 담긴 영상 자료를 돌려 보고 그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그녀는 어느 날 점자 도서관에 찾아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자신의 아버지 안복남이 사실은 시력을 거의 잃은 상태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 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는 1981년 이후로 무대에 서지 못하고 1982년 권투 선수 김득구가 라스베이거스로 경기를 떠날 때 후원자 기업인의 요청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돈을 훔쳐 행방불명되는데, 이때 이미 눈이 멀어 있었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안미선은 미국으로 떠나 아버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본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라진 사막에서 소리를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 자신에게 아버지에 관한 진실을 알려 준 점자 도서관 관장에게 녹음 시디(CD)를 전달할 것을 부탁하며 이 이야기를 담은 편지를 동봉한다.

< 사건 전개 >

발단	나와 안미선이 사랑하다가 헤어짐
전개	9.11테러 사건이 안미선의 삶의 전환점이 됨
위기	나가 안복남과 미선의 관계를 알고 점자 도서관 이 관장을 만남
절정	이 관장으로부터 안미선과 아버지 안복남의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됨
결말	나와 이 관장은 안미선이 보낸 CD를 들으며 그녀의 아픔에 공감함

< 작품의 key point >

아버지 안복남에 대한 그녀의 태도 변화: 원망과 부끄러움 -> 이해와 공감

주제 의식: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의미, 소통의 부재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소통

- 안복남
- 미국에서 실종됨
 - 무명시절 거쳐 두늦게 코미디언으로 성공
 - 눈을 다침

부녀

안미선

나

전연인관계 (♡)

편지로 아버지 이야기 전달

+ 점자도서관 관장에게 CD 전달 부탁

- 라디오 PD

- 아버지의 연기를 수지스러워 함

- 실종된 아버지의 흔적 찾아 다님

< 요약 >

이관장

안미선과 있었던 일 설명

나

- 점자도서관 관장

- 1981년 안구적출 (시각 장애인)

아버지의 실명 가능성을

알게되어 안미선이 충격 받은 일